

지역 매 아 리

# 김제시, 치매특화사업 지원

### 김제시보건소,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치매 고 위험군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반기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억력이 다소 낮아졌거나, 경도인지장애를 보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팀과 함께 기억이 자라는 인지교실, 꽃과 함께하는 원예교실, 푹푹푹 요리교실, 사군자 교실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꿈꾸는 청춘! 기억력을 찾아가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총11회 진행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질환인 치매에 대비해 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드림스타트, 여름방학맞이 가족 물놀이 체험 운영

김제시 드림스타트(과장 신미란)는 지난 16일 완주군에 위치한 아쿠아틱파크 아미존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보호자의 생업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평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견학 및 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돕고자 기획됐다.

참가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28명이며, 물놀이 안전교육과 물놀이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행동발달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 캠프 참가자는 "평소 일이 바빠 가족과 놀러가기 힘들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평소에 해보기 힘든 여러 체험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기억이 꽃피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치매안심센터와 물리적 거리가 있는 읍·면, 동 단위에 거주하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격차 해소 및 치매예방을 위해 '기억이 꽃피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상반기 동안 17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동지역 경로당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27

일까지 각각 12회씩 진행되었고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에 하반기에도 총 15개소에서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회에 걸쳐 치매예방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특화사업 기억이 꽃피는 치매예방교실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치매예방운동, 공예치료, 원예치료 등의 신체적 활동 및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노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물리적 제약에 관계없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평생학습 완주학مام(완주 역사문화 길잡이)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 완주의 역사·문화 깊이 있게 배우다

### 완주군, 평생학습 완주학مام 개강... 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

완주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평생학습 완주학مام(완주 역사문화 길잡이)을 개강했다.

완주군은 평생학습 완주학مام(완주 역사문화 길잡이) 양성과정을 지역대학인 우석대학교(평생교육원)와 함께 2학기(13강) 과정을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생학습으로 접근한 완주학مام

(Mom)에서는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학 전문가 역량을 습득 후 평생학습 동아리까지 결성되도록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에서 예비 주민강사로서 실천 경험을 쌓는 '삼삼오오하하' 과정을 거쳐 학교 밖 방과후 마을학교, 학교내 방과후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습형 일자리 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학مام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광객은 "완주군에 대한 역사, 문화, 경제, 완주정책 다원적 사회분야까지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우리지역 역사 인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른세대와 아이들 세대의 역사, 문화 소통 창구를 열어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사회복지무원, 사랑의 헌혈행사 적극

완주군이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발인 가운데 사회복지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완주군은 최근 청사에서 진행된 헌혈운동에 사회복지무원 11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그룹은 많아지고 있지만 방학 중 헌혈인구 감소로 인한 응급혈액 확보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한 복지무원은 "내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몸 관리를 잘해 헌혈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헌혈 행사가 직원들과 사회복지무원들에게 생명 나눔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중학교 하키부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된 제33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김제중학교 하키부, 연이은 쾌거

### 제33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52년 전통에 빛나는 김제중학교 하키부가 지난 5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은메달 수상과 7월에 개최된 한국 중·고 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된 제33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하는 연이은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중학교 하키부는 김태현 감독 하에 박세진 학생을 비롯한 16명의 하키부 학생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힘든 훈련을 이겨낸 결과 그 땀방울이 결실이 되어 돌아왔다.

대회 기간 김제중학교는 8일 예선전에서 산곡남중을 4:1로 승리하였으며 9일 준결승전에서 주최 도시 중학교인 아산중학교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였다.

또한 11일 결승전 경기에서 창성중학교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개인상으로는 감독상 임진욱 부장, 지도상 김태현 감독, 최우수 선수상 박세진 선수가 수상했다.

2019년에 들어 김제중학교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제20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전국하키대회와 이번 대통령기도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올해 2관왕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정상으로 우뚝 서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상훈 전라북도하키협회 회장과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은 이번에도 쾌거를 이룬 김제중학교 어린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하키를 이끌어 나갈 체육영재로서의 꿈을 한껏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보건소기타동아리, 삼례문화예술촌서 합주선보여

7080 통기타 가수 거장인 소리새의 라이브와 완주군 보건소 기타동아리 건강하모니의 선율이 완주의 무대를 아름답게 꾸몄다.

완주군 보건소는 지난 17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아트네트웍스(주) 주관으로 열린 소리새 라이브 콘서트에서 건강하모니가 오프닝 무대를 꾸몄다고 19일 밝혔다.

건강하모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모토로 구성된 동아리로, 사회복지시설과 크고 작은 축제 등에서 활발한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건강하모니는 소리새와 (5월의 편지)를 함께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소리새는 대표곡인 <그대 그리고 나>, <동나무집> 등을 부르며 1시간여 동안의 공연을 풍성하게 채웠다. 공연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은 "아름다운 기타선율과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과 마음의 위안을 주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강하모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특별한 추억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재능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